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재민



며칠 전 인터넷 카페에서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라는 글을 읽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쭈그리고 앉아 힘들게 일하는 걸 보며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부엌에서 혼자 찬밥 한 덩이로 점심을 때우고, 한겨울 차가운 우물물로 맨손 빨래를 하고, 식구들은 먹는데 어머니는 굶어도 되는 줄 알았다'는 내용이였다. 옛날 어머니들은 남몰래 눈물과 고통을 참아내며 가족들에게 지고한 사랑을 베풀며 살았다.

이렇듯 말다툼하는 게 생각났다. 그렇다면 왜 우리 세대는 부모와 자녀들의 생각이 엇박자가 나는 걸까.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해결책은 과연 없는 걸까. 구글과 보잉사에 리더십 컨설팅을 해주

아들 딸을 진정 사랑하시나요

고, 한 번에 무려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8000만 원을 받는다는 골드 스미스박사는, 가정의 리더인 부모들에게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내 생각을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말 것이며, 매사에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좋은 말만 하고 자신은 실천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이중언격자'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말은 자녀들의 행복을 진정 원한다면, 자녀들의 실상을 정확히 직시하고, 자녀에 대한 지나친 허상에서 벗어나라는 지적이다. 또한 기성세대들이 사오십 년 몸매 배인 그들의 행동 관습은 고쳐지 않

은 채 자녀들에게만 변화를 요구하는 게 문제이다는 충고이다. 작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무려 34만 5000명의 관객을 동원하고도 요청에 밀려 재계봉까지 했던 다큐멘터리 영화 '올 지마 톤즈' 주인공 이태석 신부는, 20년간 내전으로 온갖 질병 속에 폐허가 된 아프리카 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에서,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다 점차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하고 대장암으로 마흔여덟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는 학교에 다닐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곳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짓고 음악과 공부를 가르쳤으며, 모두가 꺼리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다가가 염증과 진물투성으로 2, 3차 감염된 손발을 직접 문지르며 치료해 주었다. 톤즈 사람들에게 그는 잠시 왔다가 떠나는 외국인 선교사가 아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친구이자 동네 사람이었다. 그런 신부님이 죽었다는 소식에 톤즈 사람들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 보이는 것을 가장 큰 수치로 여기며 살아온 부족들이었지만, 그분을 잃은 슬픔까지 참아낼 수 없었던 것이다. 지난 90년대 중반, 우리나라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10위권에 3권을 한꺼번에 진입시키고, 판매부수도 900만 부가 넘어 '공지영 신드롬'까지 만들어냈던 소설가 공지영씨.

그녀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집필하면서 5개월 동안 1주일에 하루 서너 시간을 사형수와 함께 지냈다. 그런데 어느 날 '밥 잘 먹었어'라며 건네는 인사말에도 눈물을 글썽이는 사형수를 보고,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위대한 명언이 아닌 진정 어린 짧은 말 한마디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느꼈다고 한다.

그렇다! 우리가 자녀들의 행복을 진정 원한다면, 자녀와 생각 차이를 좁혀 나가는 교감을 계속 해야 한다. 그리고 격의 없는 교감을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모든 걸 맞춰야 한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들이 요구하기 전에 짐승 어린 사람으로 먼저 도와주어야 한다. 더 이상 자녀들이 변화도록 다그치지 말고, 세상을 더 많이 알고 더 성숙한 우리 세대가 먼저 생각하고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 진정한 자식 사랑은 우리의 입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는 아이들이 피부로 느껴질 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다. <순천향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호남 KTX, 사람·돈 지역 물리게 준비해야

오는 2014년 말 호남선 KTX가 개통되면 광주·전남도 '반나절 생활권'에 들어가면서 지역민의 생활 양상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발전에도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점도 많다. 호남선 KTX 완전 개통에 앞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광주시가 호남선 KTX 개통이 지역에 미칠 부정적 측면을 차단하고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전략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지난 18일 각 분야 전문가 등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KTX 지역발전 전략 실행계획'을 갖고 새로운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부산과 대구 등 KTX 개통 지역의 경제가 개통 전에 비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했다. 인구 유출이 심해지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체 수가 줄고 있는 등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KTX 호남선 역시 광주·전남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개연성이 크다. 특히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 의료 등 사회 전반의 기반이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점을 감안하면 호남 KTX의 '수도권 블랙홀' 현상은 KTX 경부선보다 훨씬 가속화될 수 있다.

하지만 우려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전에 철저한 대비만 한다면 사람과 돈을 광주·전남에 모으는 '역빨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KTX 대응책 마련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나서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남은 3년여 동안 광주시와 전남도, 관련 업계, 지역민이 힘을 모아 제대로 준비한다면 KTX 완전개통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손을 놓고 있다가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늪에 더 깊숙이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광주시, 의회 '경시' 시민 '무시' 아닌가

광주시가 최근 의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여러모로 모양새가 좋지 않다. 시의회가 지난해 말 사업의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인권도시포럼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집행부가 임의대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의회 경시나 다름없는 일이다.

윤봉근 의장이 지난 18일 열린 임시회 폐회사에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를 하고 있다"며 강운대 광주시장을 겨냥해 정면으로 비판한 것도 의장으로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윤 의장의 지적처럼 집행부가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면 내용을 보완해 의회를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에 윤 의장이 강 시장의 광주시장 운영에 대해 일방적이고 임기응변식이라고 지적하자 시 간부공무원들이 반박하고 나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당시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은 의

회에 대한 경시와 시장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비쳐져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집행부의 월권행위는 무엇보다 의회가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시민의 대의 기구라는 사실을 망각한 데 있다. 지금도 타성에 젖어 의회를 '협조자'로 인식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강 시장에 대한 윤 의장의 비판이 벌써 3번째라고 하는 것은 시와 의회의 '힘겨루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광주의 경제가 어렵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상생으로 가는 길에 서로 관여 갈등을 키우는 것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다.

또한 윤 의장의 표현대로 집행부의 '일방적', '무시' 등은 소통 부재에 따른 것이 아니다. 강 시장은 취임 일성에서 밝힌 '소통'에 대해 스스로 상각할 필요가 있다. 의회 역시 집행부에 대한 '군림'이라는 구태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 또한 비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새겨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임주영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이 웃은 그쪽이 생각하는 그런 웃이 아니야. 이때리에서 40년동안 트레이닝복만 만든 장인이 한 판 할 판...", "이러니 내가 안 반해. 이 어메이징한 여자야" 최근 '시크릿 가든'이라는 TV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 김주원이 했던 대사입니다. 사람들은 '현빈 없이', '주원 없이'를 하며 현빈이라는 배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가 드라마의 캐릭터를 100% 소화해서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해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하였던 것 같습니다.

보기도 하고, 남의 돈 보기를 똑같이 해야 한다는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음에도 청소년기부터 시작된 삼상절도범이 되어보기도 하며, 여자이지만 여자를 추행, 강간하는 남자 범죄인들의 심리 속으로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때론 1회 변론으로 종결되는 단박극이 되거나 변론기일이 계속되는 몇 부작 미니시리즈 또는 그 이상의 '연속극'이 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건속의 당사자를 연기하다 보면 간혹 사실관계를 헷갈리거나 핵심 내용을 잊어버릴 만할데,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실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인 다역의 삶

변호사도 사건 당사자의 의뢰인을 위한 논객인 드라마 대본을 쓰고, 당사자를 대역하는 배우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건속의 당사자를 위한 최선의 각본을 쓰고 최선의 연기를 펼치고 있는지 매번 스스로를 돌아보곤 합니다. 사건 속의 의뢰인은 허구의 인물이 아니며, 재판 하나에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거나 전 재산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조금 더 넓혀보면, 직업인으로서 배우나 변호사가 아니라도 평범한 우리네 이웃들도 자신의 삶의 배우들입니다. 가정, 직장, 사회 속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명언을 펼쳐야 하는 진정한 배우들 말입니다.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의 대사처럼 오늘날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라는 질문에 "네, 최선입니다. 확실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한 자 한 자 정성들여 의뢰인의 호소연을 설득력 있는 표현과 주장으로 담아낸 서면을 작성하고 그 서면을 읽는 판사님이 감복하는 날, 의뢰인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이러니 제가 안 반납니까? 이 어메이징한 변호사님!"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배우가 작품 속 인물과의 혼연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듯 변호사도 사건 당사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득력 있는 변론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제 머릿속 상상으로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직 미혼임에도 50대 이혼남이 되어

기고

제정본



필자처럼 통계를 평생의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세상에는 세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 라는 말이다. 남을 속이는 행위는 인간이 지적인 능력을 갖게 되면서 터득한 가장 원초적인 생존 방법 중 하나라고 한다. 그런데 이 세상의 하고 많은 생존 방법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생존 방법에 통계가 끼어 있는 것이다. 그것도 가장 고단수의 속임수로.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읽었던 톰소어의 모험, 허클베리

진위야 어떻든 이 경우 속에는 날카로운 진리가 숨어 있다. 그것은 통계를 만드는 사람에게 진실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는 경종과도 같은 것이다. 배밭에서는 갓끈을 새로 고쳐 묶지 말고 오이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 신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통계를 남을 속이는데 가장 좋은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통계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무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주 전쟁, 투명인간, 타임머신 등 SF 소설의 원조격인 H.G. 웰즈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 통계

핀의 모험 등을 저술한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처음으로 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마크 트웨인은 영국 수상 디즈데일리가 한 말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한다. 마크 트웨인과 디즈데일리는 같은 시대를 살았으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짐작이 간다. 그렇다면 디즈데일리 수상은 어떤 의도로 그런 경구를 남겼을까?

별써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계 유명인사 목록 전 문가인 존 비비를 통해 확인한 자료를 보면 디즈데일리 수상의 어떤 기록에서도 그런 말을 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돌아 다니고 있는 것이다.

는 통계가 읽거나 쓰거나 마찬가지로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상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린이를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남긴 마크트웨인이 통계에 대한 경구를 남긴 것도 이 같은 맥락이 아닐까? "음악의 빠르고 느린 비치가 사람의 맥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령대 별로 구분해 실험한 다음 그래프를 만들어 오시오." 미국의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수학 숙제이다. 과묵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미국의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로 어린이를 위한 통계 교육을 강화하고 인식을 확대해 나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호남지방통계청장>

선진국 출산장려정책 본받아 저출산 극복을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프랑스의 출산율 보도를 접하고는 부러움과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프랑스는 지난해 여성 한 명당 2명 출산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면서 유럽내 최고 출산율 국가가 됐다. 프랑스의 출산장려책의 핵심은 자녀 양육비를 최대한 낮추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첫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855유로(약 104만원)의 격려금을 지급받는다. 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자녀가 만 19살이 될 때까지 매달 271유로(약 33만원)를 지급받는다. 자녀의 수에 따라 별도의 가족

수당은 물론, 방학이 끝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개학수당도 나온다. 또한 육아 휴직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1년 동안은 587유로(약 71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이후 직장에 복귀할 경우 법적으로 일차리가 보장받는다. 부러운 현실이다. 이런 사례를 들면 정치인들은 "복지선진국과 비교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고 변명한다.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두고 광범한 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당장 목표를 정해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유원환·목포시 해인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지구촌의 식량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러시아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 곡물수출국의 생산이 크게 줄어 공급이 불안해 진 탓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여름 최악의 폭염과 가뭄으로 수확량이 급감하자 밀, 보리, 옥수수, 밀가루 등의 수출을 6월까지 중단시켰다. 반면 신흥국들은 곡물 소비가 늘면서 수급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다.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곡물의 대체 에너지화도 공급 부족에 한몫하고 있다.

곡물 값이 폭등한 것은 당연지사다. 옥수수는 1년새 70%, 콩은 50%나 올랐으며 밀 역시 3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

식량안보



다. 아프리카와 중동의 잇단 소요와 체제 불안도 상당부분 식량 위기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에도 '감 건너 불'이 아니다.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곡물자급률은 26.7%로 사상 최저였다. 쌀이 98.0%, 보리쌀이 41.1%일뿐, 밀(0.5%), 옥수수(1.0%), 콩(8.4%)은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더욱이 쌀을 제외한 다른 곡물은 비축조차 않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식량안보지수가 2006년 100.9를 정점으로 하락해 2008년 가장 낮은 95.2를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곡물 생산국들의 수출제한(식량무기화)이 가속화되면 식량안보조차 위협받을 상황이다.

농민단체들은 그동안 곡물자급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식량자급 기반을 확대해줄 것을 절박하게 요구해왔다. 그들의 요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정후식 정책부장 who@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for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